

看護教育「세미나」 및 養護
教師講習會 評價報告

지난 1월 6일~10일까지 看護教育 세미나를 1월 14일~16일까지 養護教師(全國中, 高, 大) 講習會를 各各 機關간호협회 주회로 中央醫院에서 開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간호교육「세미나」는 간호교육의 향상과 더불어 적신히 요청되는 Nursing

Research를 주제로 배하여 15개 기관에서 52명이 참석하였고 양호교사 강습회는 중고등 학생지도에 필요 불가결한 성교육 및 정신위생을 강습내용으로 14개 기관에서 46명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내용을 얻게 되었다.

간호교육 세미나 및
(1964년 1월 6일-10일)

- 1) 대단히 만족하였다
- 3) 불만스러웠다

양호교사강습회 평가보고 (평가 1)
(1964년 1월 14일-16일)

- 2) 만족하였다
- 4) 대단히 불만스러웠다

평가 내용	간호교육 세미나 (Nursing Research)					양호교사강습회				
	1	2	3	4	기권	1	2	3	4	기권
1) 이번 세미나의 목적	13	15	1		1	12	15	1		1
2) 세미나를 위한 준비	7	20	3			12	14	2		1
3) 세미나 장소	12	13			5	17	11			1
4) 세미나 개최계절	6	22	1		1					
5) 세미나 전에 각 Member는 Subject에 대해 충분히 알고 참석했는가?	5	12	5	4	4					
6) 세미나 전체 트외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1	11	9	2	7	10	9	5		5
7) 특별강의	19	10			1	11	12	1		9
8) 전체 시간배정	2	16	8		1	10	13	3		3
9) group 트외제목		12	7	1	10	10	11	2		6
10) group 트외방법	1	7	10		12	8	15	2		4
11) group member의 발언상태	1	5	14		10	6	16	2	1	4
12) 기대했던 목적달성 여부	1	22	5		2	5	13	6		5

	기권	너무 많다	적당 하다	너 적 부 다	기권	너무 많다	적당 하다	너 적 부 다
13) 세미나 전체 인원수	1		28	1				
14) 세미나 기간		4	25	1				
15) group의 인원수	8		19	3				
16) group discussion의 시간수	9	9	11	1				
17) 가장 만족했던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가 원했던것임 2. 강의가 좋았음 3. 분교부의 법형탈침을 듣게됨 4. 동업자간의 비면 5. 강식영 선생의 강의 6. group discussion을 할 수 있는점 7. 숙박을 주선했던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가 좋음 9명 9명 2. 새로운 지식을 얻음 5명 3. Tea time이 좋음 3명 4. 분위기가 좋음 3명 5. 강소의 준비가 좋음 2명 6. 이옥경 선생강의가 좋 음 			
18) 가장 불만 했던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roup discussion이 진 전되지 않은 점 2. 구체적 강의가 결핍 3. 협조가 없는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통지공문이 불 만 1명 2. group discussion의 태 도가 공격적인 점 3. 정신위생 강의가 짧은 점 4. 상호간의 인사교환이 없 었던 점 			
19) 다음 세미나에 희망 하는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자로서 지녀야할 일 반적 교양 및 윤리문제 2. 간호학교행정 3. Research의 강의 및 Symposium 4. 간호학교 교육자의 배 도의 재교육 5. 전문과목 재 보수교육 6. 학생기숙사 생활지도 7. 병실관리 8. 정신과 간호 9. 보건간호학 10. Research 발표회 11. 학생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학교 아동의 급식 (영양)문제 2. 대학생의 심리교육 3. 통계학 4. 종합대학의 여학생문제 5. 고등학생 결핵환자에 관 하여 6. 보건간호학 및 교재에 관해서 7. 정신병에 관해서 8. 아동심리학에 관해서 9. 자녀교육과 위생 			

B. 세미나 개최의									
1. 회수 1년	1회	5	3	1. 강의를 주로하는것이 좋다.		15	15		
	2회	22	19	2. 실습 및 견학을 주로하는 것이 좋다.		4	6		
	3회	1		3. 그룹토의를 주로하는 것이 좋다.		2	1		
	수회	4	5	4. 강의와 그룹토의를 주로하는 것이 좋다.		4	2		
	기 간	2	2	5. 강의 실습 및 견학을 주로하는 것이 좋다.		3	1		
2. 시기	여름방학	2	4	6. 이상 1, 2, 3. 다하는 것이 좋다.		4	1		
	겨울방학	5	5	기 권		3	2		
	방학과 관계없이	4	4	E. 세미나 개최중의 토의 방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16	14	1. 심포지움이 좋다.		5	3		
	기 권	9	2	2. Panel discussion 이 좋다.		4	1		
3. 기간	3일	4	10	3. group discussion이 좋다.		18	21		
	5일	8	5	기 권		8	41		
	7일	15	10	G. 세미나의 강의를					
	2주일	2	2	1. 전문분야 간담원이 하는 것이 좋다.			1		
	기 타	1		2. 전문분야 외부인사가 하는 것이 좋다.		4	17		
기 권		5	2	3. 전문분야 간호원과 외부인사가 하는 것이 좋다.		28	19		
C. 세미나 개최내용은									
1. 전문분야로 하는 것이 좋다.			24	20	기 권		3	2	
	2. 교양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10	6	H. 세미나 참석자의 인원수들			
		기 권		1	3	1. 제한하는 것이 좋다.		15	10
D. 세미나 개최장소는									
1.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다.			23	20	2. 제한 안 하는 것이 좋다.		14	17	
	2. 각 지방상대르 순회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7	기 권		6	2
				6		E. 세미나 전체시간 배정은			
	3. 관광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			1					
4. 지방상대르 순회적으로 관광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			1						
기 권		4	2						

- I.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1. 간호교육 세미나
 1. 강사 선택시 권위 있는 분을 선택하기를 바람
 2. 이번 Seminar의 내용은 간호지에 기재할것
 3. 세미나 전체 참석자의 소개가 첫날 있었으면
 4. 강의내용 print를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評價內容中 마지막 質疑인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을 일별하여 받은 인상으로는 양호교사들의 직제 및 자격문제가 확고해졌지 않는 일종의 초조와 불안이 안감에 나타나고 있는것 같았으며 전체적으로 어디까지나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Seminar」를 彷彿한 정도에 불과하며 세미나 보다는 오히려 강습회 또는 재교육의 집약적 교수방법을 통한 지식의 내량 보급을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그나마도 강습회 또는 Seminar의 참석 경험이 많은 간호학교교사들은 양호교사들보다는 「세미나」진행의 모든 점에 친숙해졌고 구미식 선진국의 세미나 수준에 유박해 가고 있는 감도 없지않아 주회자측의 입장이나 한국의 간호교육직인 견지에 立脚하여 저속히 기쁜 사실이 아닐수 없다.

그룹토의의 발언상태라던가 진행방법도 회수불 거듭할수록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어 각 그룹에서 나온 토의 결과도 자못 흥미가 있었고 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각 그룹토의 보고증 그 1例를 記하면 다음과 같다.

看護教育「세미나」 그룹 보고

그룹명 : group A

그룹리더 : 최익도

그룹토의토의 : 「세미나」에 관한 Research

1. Research의 제목선택

그룹토의 제목으로서 看護國家考試問題는 看護教育課程(즉 大學課程, 初級大學水準課程, 高等學校水準過程) 別트 구별을 요한다는 문제로 산고 토의를 하자 는 의견에 진지한 토의 결과 결국 이는 政府의 現行法令을 論難하게 되고 정부 당국의 협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문제로 낙착되어 Research의 제목으로서 우선 효과적인 「세미나의 호소」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국적으로 論文題目을 定하는 단계에 이르러 토의 결과 推戴를 하기로 하여 「看護教育「세미나」에 대한 研究調査」로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2. 論文構成上 緒論이 될 수 있는 內容으로써

【1】目的과 動機 및 Seminar을 定義를 設定하게 되었다.

a. 目的은 본 Research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개최하도록 廣源의 간호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과 b. 動機는 과거 수차례 개최한바 있었던 「세미나」가 과연 어느 정도 효용이 있었고 참석자 자신들에게나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간호교육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며, c. 여러 文獻을 참고하여 Seminar의 정의를 論하고 일반 「세미나」의 現代社會生活에 있어서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따

라서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논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2】對象(材料)와 方法

a. 對象은 ① Seminar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전국 간호학교 원직 강사 및 교사로서 정하고 ②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간호학교와 관련이 있는 종합병원의 수간호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에 경험이 전혀 없으면 質疑書를 보낼 대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하여 결국 대상은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b. 연구방법은 Questionnaire type of Method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질의서 질의 내용을 만들기 전에 質疑書에 등봉할 便紙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즉 (가)目的을 叙述하고 (나)記錄方法을 明示하고 (다)送付해줄 기일을 밝히고 (라)결과를 통지할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마)누가 한다는 연구자명을 밝히고 (바)연구동기를 설명하고 (사)우표와 봉투를 동봉하기로 한다.

c. Questionnaire type of Method의 question form의 질의내용 및 form은 評紙 제2양식과 같이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open form과 closed form중에서 closed form으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토의가 진전되어 질의 전부를 closed form으로 하고 제일 마지막 난에 일종의 open form을 사용하게 되었다.

b. 연구기간은 1964년 1월 8일 「세미나」시의 그룹토의 때부터 Questionnaire에서 회답을 얻고 기타 문헌을 참조하여 하나의 논문이 완성될때까지로 한다.

3. Research 결과에 있어서 다음 몇가지 假說(hypothesis)를 設定하게 되었다.

1. 對象者別 分類에 의한 data.

a. 年齡別(世代別) 20, 30, 40, 50 代에 따른 차이

b. 직업별에 따른 의견 차이.

c. 學力別에 따른 의견 차이.

d. 地域別에 따른 의견차이.

2. 項目別 分類에 의한 Data

이상 2가지 분류에 의한 data가 論文體裁에 있어서 本論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얻은 data의 복잡 여부는 성격에 따라서 적당히 도표, graph, 등으로 표시하자는 결론을 얻었다.

4. 考察에 있어서는 他機關에서 개최세 「세미나」 또는 他種類의 Seminar결과를 考察하고 간호교육 「세미나」와 비교하여 批評을 가하기로 한다.

5. 結論은 data에서 결과를 보고 Recommendation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6. 參考文獻은 今著 Seminar의 강의와 대할간호 제7권 Seminar보고 기타 美陸軍看護將校들의 Seminar(Research)보고 서등 문헌을 참고했음을 기록하기로 한다.

7. 致辭는 특별히 Majo Nichols가 그룹토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서 제목으로 부터의 脫線을 피하고 Research가 가능할수 있는 면으로 토의가 진전되었음을 밝히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협회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사한다는 것을 첨부하자는 의견에 결론이 귀착되었다.

전반적으로 Research와 이에 따른 論文作成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는 Member들이었으므로 토의가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Seminar 기간중에 배운 지식을 심분 응용,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토의를 통해서 그런대로의 미숙하나마 “간호교육 [세미나]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研究題目 즉 論題下에 Research에 착수, 展開해 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例 이외에도 제2 그룹에서는 產褥期 產母의 無菌的看護라는 題目 밑에 Experimental type Method를 사용하고 또 한그룹(3그룹)에서는 회복기 장신분열증 환자의 간호라는 제목하에 Questionnaire type of Method를 사용하여 Research를 각개 전개해 나가기로 토의

가 되었다.

한편 양호교사 강습회의 그룹토의에서

1. 위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男學生性教育에 대하여 手冊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3. 결핵성 아동 교육지도
4.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4가지 제목하에 4그룹의 흥미 진진한 토의가 있었다.

<교육위원회 제공>

소 식

교환간호원으로 도미한 은혜순양께서는 도비후도 끊임없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편지 일부를 소개한다면,

『여전히 바쁜 병실일을 하며 시간있는데도 의제나 안에서 간호원들과 모임을 갖는 데에 빠지지 않고 찾아 다니며 friendship를 지킬려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무엇이 소개해야 할지 신경이 썩지며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다소 알고 흥미를 갖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란 기회있는데도 간호원들이 이곳에 와 배우고 한국을 소개하며 또 아직 가난한 한국 경제에 도움이되며 문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왜들 모두 외국으로 갈려고 하는가? 의심과 좋지않은 생각을 하였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노력하여 외국에 빌리 퍼져 한국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인구가 많아 바치 가난한 집 식구가 자꾸 늘어 갈때 식구가 줄어들면 좋듯 우리도 이렇게해서 동시에 좋은 결과를 갖어오게 되는것을 그냥 들수는 없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곳에 많이 오라는것은 이곳이 편해서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채널과 더욱 교된 일들이 계속됩니다만 저자신의 발전과 또 국가에 이바지 하는 의미에서 와달는 것입니다』 미국에 교환간호원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갈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아래의 주소에다 편지를 내 보시지요?

Director of Nursing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York & Tabor Roads
Philadelphia 41. Pa. U.S.A.

많은 회원들이 application form를 보내시기 바랍니다.